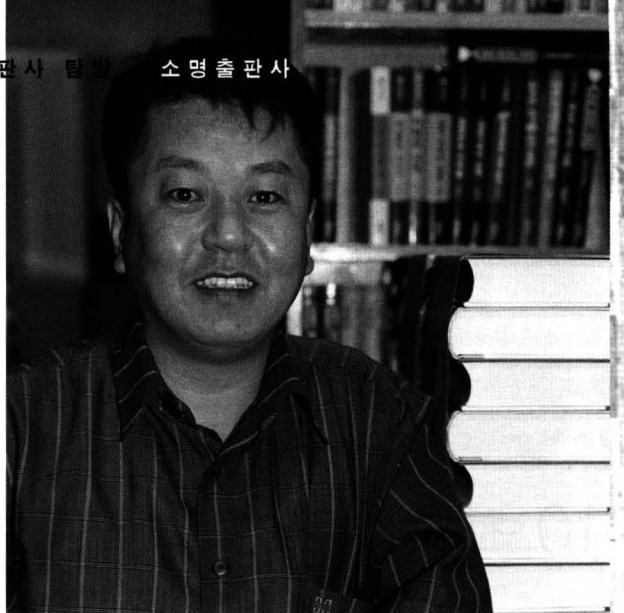


학술출판 6년의 새내기, 그러나 위기 속 해법 제시에는 강한 신성新星



2002년에 《창조된 고전》, 《들뢰즈와 문학-기계》 등을 선보였던 소명출판은 굵직한 인문철학서를 고급스럽게 편집하는 신진 학술전문 출판사로 인정받고 있다. 학술출판사에서 편집을 해왔던 박성모 사장(40)은 6년 전 소명출판을 세우며 학술출판 현장에서 느껴왔던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나가려 했다.

“교수, 대학강사 등 학술서 저자들에게 학술서는 남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평생 공부한 결과가 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도서시장에서 가장 크게 대접받아야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미미하다는 데 문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학술출판이 인쇄, 편집체제 등 여러 부분에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실감하고 있었죠” 그는 상업적인 책들이 보기 좋게 나오는 것에 반해 학술도서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문제를 느끼며 그 해결방안을 자신의 출판 형태에 반영했다. 소명출판의 책이 지질부터 제본상태까지 일반 대중서 못지않은 최고품질을 지향하는 것도 이를 반영한 결과다.

“사실 초기에는 대형출판사 욕을 많이 했습니다. 연습지에 책을 만든 경우가 많았거든요. 전문책은 천천히 습득해야 하고, 가독성을 염두에 두고 인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정작 신경써야 할 학술출판서의 편집은 조악했죠.”

소명출판의 책은 90퍼센트 이상 양장(하드 커버) 형태다. 학술서야말로 자료의 성격이 강하고, 서가에 오래 꽂아두고 봐야 하는데 영똥한 책들만 양장으로 만들어내는 풍토를 지양했으면 하는 게 박성모 사장의 뜻이었다. 그는 학술서적의 이름을 빌려 없어도 되는 책을 출간하는 것을 지양하길 바란다. 대개의 학술서적들이 명망가 위주의 출판을 지향하는 데 반해 새롭게 떠오르는 실력 있는 학자들을 발굴하고 출판을 통해 그들의 저술활동을 격려해 주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물가상승, 제작비 상승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그럴 수록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학술출판 현장에 있었으니 제가 갖고 있는 바탕 위에서 해법을 찾아봐야죠.”

그는 학술출판을 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든 여러 노력들을 해야 하지만 학술출판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외부적인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중 하나는 양질의 책을 내려는 실력 있는 필자와 좋은 품질의 책을 완성하려는 의식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특히 그는 실력 있는 필자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학 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본다.

“좋은 논문을 쓴 분들만 저작을 내야 하는데 ‘연구실적’ 때문에 교수들이 의무적으로 책을 내잖아요. 이런 이유로 여러 편의 논문을 모아놓은 학술서가 의미 없이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수임용 때 대학에서 제시하는 요건들이 수정되어야 하죠. 또 우수학술도서 선정 때 형식적인 나뭇보다는 질적인 판단으로 과감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는 이런 사항들이 갖춰졌을 때 학술출판이 자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본다. 편집부 4명과 박성모 사장이 편집 및 영업까지 모두 담당하는 소명출판은 버겁지만 한 달에 편집자 한 사람이 한 권의 책을 만든다는 과제를 세워 놓는다. 그런 각오로 1년에 약 30여 권의 책을 출간하고 있고, 현재까지 150여 종이 나왔다.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보다는 재판을 찍는 책이 저희에게는 더없는 효자죠. 예전에는 교수님 책이 나오면 제자들이 그 책을 사서 선생님께 직접 사인을 받는 그런 낭만이라도 있었지만 요즘 학술서를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시장 형태가 좁아지는 대신 보다 세분화된 분야의 책들이 출간되고 있는 학술출판의 현실. 이 속에서 소명출판은 여러 어려움을 딛고 고급 학술서를 만들자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 도약을 꿈꾼다. ■ 취재김청연 기자·사진 박신우기자